

호젓한 산사서 방학 알차게 보내요!

여름방학 맞아 광주·전남 사찰들 어린이·청소년 캠프 마련

여름 방학을 맞이해 아이들을 어디에 보낼까 고민하는 부모가 있다면 정답은 산사이다. 맑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숨 쉬는 산사에 말로 아이들에게 건강과 문화체험 동시에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사찰과 단체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

지리산에 위치한 전남 구례 화엄사(주지 종산)는 7월 29~31일 화엄사 템플스테이 수련관에서 어린이 여름캠프를 진행한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스님들이 진행하는 이번 캠프에는 진불가 율종 경연대회, 대형 사불 만들기, 화엄 영화제, 미니올림픽, 물놀이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200명 선착순 접수이다. (061)782-7600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을 1년간 진행하고 있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도 8월 3~5일 2박3일 동안 백양사에서 어린이 생태학교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발우공양, 108배 정진, 백암산 예코트레킹, 공중돌놀이, 건강한 먹거리 체험, 부안 에너지체험관 탐방, 물놀이(해수욕장)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0만원, 100명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회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

를 8월 10일~12일까지 2박 3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개최한다.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이 행사는 천은사-노고단 산행-달궁야영장-매동마을-벽송사-실상사로 이어지는 지리산 걷기 프로그램이다. (062)223-3623

순천 선암사(주지 설운)도 여름방학을

물놀이...사찰문화 체험부터

생태기행, 불령강좌 등

이색적 프로그램 다채 마련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한다. 7월 27~29일 열리는 행사에는 아름다운 선암사 화폭에 담긴, 연등 만들기, 탐놀이, 물놀이, 편백나무숲 걷기 명상, 108참회, 염주 만들기, 참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6만원, 100명 선착순 접수한다. (061)754-6250

최근 인드라마 전법도량으로 바뀐 광주 선덕사(주지 응묵)도 오는 8월 3~5일 '인드라마 어린이 수행학교'를 개설한다. 행사에는 ▷발우공양, 사찰예절, 담력수행,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어록생태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교미술체험을 하고 있다.

마음속 자연 물들이기, 전래놀이, 무등산 생태기행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는 10만원. (062)263-4660

전남 순천 금당정(주지 범일)은 7월 30일~8월 11일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명상학교를 개설한다. 매일 1시간 명상과 1시간 체험학습이 진행되며, 청소년들은 4시부터 불령강좌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들은 8월 12~15일 제주도로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061)724-5988

전남 영암 도갑사(주지 설도)는 7월

27~29일, 7월 31일~8월 2일 2회에 걸쳐 '도갑사 여름 숲속학교'를 실시한다. 동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숲속학교에는 단주 만들기, 공양습의, 부모은중경 사경 및 병풍 만들기, 소원등 만들기, 사불, 먹거리 북북, 물놀이, 만다라 명상, 부모님께 편지쓰기, 장기자랑, 탐놀이, 캠프피어거가 진행된다. 참가비 3만원이며, 참가자는 필기도구 세면도구, 수영복을 준비하면 된다. (061)473-5122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유족들에게 염불로 큰 힘 되고파”

강석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사무국장

13년동안 장례식장서 염불봉사로 지역포교 실천



“장장 힘이되고 도움이 절실한 곳이 어디일까 고민하다가 염불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경황이 없을 유족들에게 염불이 큰 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강석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사무국장(사진)은 지난 2000년부터 13년 동안 3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거의 매일 장례식장으로 출근하시피하며 염불봉사를 하고 있다.

강 사무국장은 결혼 후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됐다. 강 사무국장은 “결혼을 하고 보니 처당숙모가 태고종 스님이었다. 아내와 함께 자연히 절을 찾게 되면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제대로 된 불교를 알고자 화엄불교대학에 입학했고, 내진김에 포교사로 본격적인 불교활동에 나섰다. 포교사 활동도 염불봉사팀장을 맡게 되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현재 염불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불자들은 총 33명. 주로 장례식장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연락을 취하면 대체로 15명 정도가 염불봉사에 참여한다.

화엄불교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천수경, 범성경, 장엄법같은 의식집으로 1시간정도 염불봉사를 하지만 그에게 변하지 않는 철칙이 하나 있다. 절대 유족들로부터 여비를 받지 않는 것. 아무리 먼 거리라도 모두 회원들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르는 경비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한번은 염불봉사를 하는데 바로 옆 빈소에서 염불해달라고 요청해서 연이어 봉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 주는 봉투를 사양하느라 예를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염불봉사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동료 포교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강 국장은 다른 동료 포교사들과 함께 군 포교 현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인실 탄약장 장영사 범당이나 남원 103연대를 담당하는 포교사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

강 국장은 “지역 불교실정이 많이 열약하지만 스님들을 도와 함께 열심히 포교하면서 지역불교발전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금 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염불봉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스님들이나 포교사들 모두 초발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수행하고 전법하는데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바람이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신행단체 임원 템플스테이

익산 승림사에서 7월 7~8일 30여명 참가



익산지역 신행단체 임원 30여 명은 7월 7~8일 익산 승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익산 승림사(주지 지광)는 7월 7~8일 지역 신행단체 임원 등 재가불교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 박종근회장을 비롯해 마한거사리, 포교사단 능인회, 이리 불교대학, 파라미타 교사불자회, 합창단의 신행단체 임원 30여 명이 동참했다.

참선, 발우공양, 다도, 함라산 둘레길 탐방, 견기명상, 스님과의 대화, 108배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지역불교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광 스님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신 신도임원들께 감사인사를 전하며 “지역불자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의견은 향후 템플스테이 운영에 참고 할 것”이라며 “지역불교발전 위한 고견들은 익산지역의 전법과 포교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근 신도연합회장은 “각 신행단체의 소중한 의견들을 참고해 지역불교발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법정 스님의 향기를 전하다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본부장 고현, 조진대 교수)은 지난 7월 7일 광주 동구 KT정보센터 대강당에서 ‘광주지부 창립 15주년 기념 및 공양 나눔의 집 개원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그동안 도시락봉사, 장학사업 등 지역 복지사업을 해온 광주지

부 15주년을 기념하고 공양나눔의 집 후원을 위해 진행했다.

고현 교수는 인사말에서 “음악회와 공양나눔의 집 개원을 통해 법정스님이 말씀하신 ‘맑고 향기롭게’ 의미를 더욱 멀리 펼쳐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주시 특정종교 표기 도로표지판 삭제 특정종교 성지로 도로표지명을 바꿔 물의를 일으켰던 전주시가 최근 도로표지판을 바로잡았다. 전주 승안산을 천주교 성지인 ‘처명자산’으로 표기해 특정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역불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최근 ‘처명자산 성지’ 대신 ‘전주 한옥마을’만 표기돼 있다.

계을 받들어 깨달음 구하겠다

금산사 하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중회 개최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7월 9일 대적광전에서 하안거 포살법회와 교구중회를 개최했다.

원행 스님을 포살법사로 모시고 110명의 대종스님들을 향해 (범장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심지품, 심중대계, 사심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다짐했다.

원행 스님은 “이번 하안거 포살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다”며 “지혜와 자비로 못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보제루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17교구 중회는 생전예수재 결산보고에 이어 연꽃축제 봉행의 건, 어린이 여름수련대회에 관한 건등을 의결했다.

또 종회의원 성우 스님(은적사 주지)으로부터 종단쇄신입법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성우 스님은 종단 쇄신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중앙중회에서 의결된 쇄신입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미안마문화원